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미투(#Me Too)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한다!

■ 일 시 \_ 2018년 3월 5일(월) 오전 11시

■ 장 소 \_ 서울지방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동)

■ 주 최 : 전국성폭력상담소(128개소) (사)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울성폭력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해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 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로템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뽕오키어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 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 상담소,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시부아산성상담지원 센터,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새경년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 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 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돌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 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 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 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 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 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 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 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일YWCA성폭력 상담 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포천 가정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하동 성가족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 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 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 왕 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흥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사)장애여성공감,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쉼터 '열림터', 부설연구소 '울림' (사)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보호사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사)한국여성의전화

■ 공동변호인단(101명) 강연재, 강영훈, 고승우, 곽항기, 길인영, 김건, 김기욱, 김동현, 김민아, 김보람, 김연진, 김영미, 김영옥, 김예 니, 김용정, 김재희, 김정성, 김지현, 김지후, 김태환, 김혜경, 나지수, 노종연, 류미선, 문혜영, 박근우, 박보경, 박선영, 박선영, 박소현, 박순철, 박 승기, 박영현, 박정현, 박진현, 박현화, 방지영, 백승재, 부성연, 서혜진, 설은주, 성기택, 신고윤, 신민정, 신지후, 신현식, 신현정, 신현정, 신현호, 안귀옥, 안미영, 안미현, 안서연, 안지희, 양정숙, 엄다솜, 오빛나라, 오지원, 온채희, 원경주, 윤경록, 이경환, 이남주, 이도규, 이명숙, 이보람, 이소 아, 이승재, 이은초, 이주경, 이지은, 이현주, 이현진, 임계완, 임유정, 장경아, 장수혁, 장윤미, 장철우, 정경옥, 정수경, 정호진, 정희경, 조현옥, 조 혜인, 차미경, 차연희, 천정아, 최경진, 최수영, 최주영, 최현희, 태지영, 하희봉, 한승미, 한주현, 현지현, 홍지혜, 황다연, 황수희, 황혜란

■ 내용 - 다음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공대위 발족 취지 및 경과 공유 ..... 사회자
- 발언 ..... 당사자, 공대위 활동가, 변호인단
- 향후 계획 ..... 연극계, 여성계, 법률팀
- 질의 및 응답 ..... 다함께

### < 발언자 >

	성명/소속	제목
발언 1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신뢰와 존중으로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발언 2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미투(#Me Too) 운동, 변호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 3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4	이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활동가)	"미투(#Me Too) 운동의 힘으로 건강한 연극 생태계를!"
발언 5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미투(#Me Too) 운동에의 응답, 우리 스스로의 변화부터"
발언 6	김수희 (연극인)	"당사자의 목소리 1"
발언 7	이재령 (연극인)	"당사자의 목소리 2"
발언 8	홍선주 (연극인)	"당사자의 목소리 3"

## 경 과 공 유

서혜진(공동변호인단 변호사)

△ 2018. 2. 14.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가 SNS에 이윤택 미투 글을 올린 뒤, 이재령 대표 등 피해자들의 이윤택 성폭력 폭로가 이어짐.

△ 2018. 2. 19. 이윤택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는지라,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을 취해 만나게 됨.

△ 2018. 2. 21. 피해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변호사를 만나게 됨.

△ 2018. 2. 22. - 2. 23.

최근 피해자들 3인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로 찾아 와, 상담 후 변호사 도움 요청.

△ 2018. 2. 26.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101명의 공동변호인단 구성.

△ 2018. 2. 28. 피해자 16명을 고소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감독에 대한 형사 고소장 접수.

△ 2018. 3. 2. 여성인권단체(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2018. 3. 5.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발언문 1 >

## “신뢰와 존중으로 미투(#Me Too) 운동을 지지합니다”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배복주입니다.

전국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상담소들은, me too 운동을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언하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현장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면서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을 공감하고 공분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가까운 주변인들로부터 듣는 '참아라', '잊으라', '너도 책임있다' 라는 말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혼자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 합니다. 어렵게 상담소를 찾아와 가해자를 처벌하기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되면 피해자들은 '왜 이제와서 신고했느냐'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며 질문하는 수사.사법기관의 피해자를 의심하는 태도에 또다시 좌절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후회하면서 자책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해 무고죄.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해서 또다시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해자의 생애전체를 뒤흔들어 더이상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지못하게 되는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혼자 대응해 나갈수없습니다. 성폭력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가 보장될수있는 피해자 옹호와 조력 시스템을 견고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수사사법 절차안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촘촘하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피해자를 옹호하고 조력하면서 피해자가 2차피해를 겪지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2 >

## “미투(#Me Too) 운동, 변호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명숙(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성폭력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차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극심한 수치와 분노 속에서 고통 받으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힘들게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말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폭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빠지지 않고 동반되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피해(무고, 명예훼손으로의 역고소, 악성루머, 회사에서의 불이익, 직장에서의 퇴출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등)와 따가운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다’느니,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해 본들 증거 부족, 공소시효, 친고죄 등의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느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돈을 요구하는 꽃뱀”으로 내몰리거나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등의 말들이 대표적인 선입견의 예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해 본 변호사들이라면 누구나 위의 선입견들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엄히 처벌하게 된 많은 사례들이나, 2차 피해를 잘 예방하거나 2차 피해에 단호하게 대처한 사례들, 성폭력이나 2차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한 사례들이 더 많다는 사실도 변호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미투(#Me Too)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이운택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만 하루만에 101명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의 미투(#Me Too) 운동에 적극 공감하고 힘이 되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폭력과 이에 대한 침묵을 없애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분들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실패한 일부 사례들이 전부인 양 우리 사회에 널리 잘못 인식됨으로써, 용기내어 미투(#Me Too)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과, 아직도 두려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내어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법적 도움을 청하는 것을 미리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한 피해자들과 공동대책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언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반인륜범죄인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히 단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변호인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힘이 되고자 하는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오랜 아픔과 어둠을 떨쳐버리기 위한 여러분의 용기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악습이 없어지고 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 발언문 3 >

“미투(#Me Too) 운동의 응답  
-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폭력이 사소하지 않다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권의 문제라고, 국가의 책무성에 의해 다루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 검찰, 법원은 여성에 대해 일어나는 폭력문제를 다룰 때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입증을 강요하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여성과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입각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해왔던 상황을 묵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뚫고 여성들은 우리사회의 성폭력근절을 위해 싸워왔고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전사회적 아니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조직구조에 기반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해자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여성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으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성폭력이 우리 여성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심대하게 손상하는 범죄임을 제대로 알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는 올바른 판결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랫동안 성폭력상당현장의 경험에 의하면 대다수의 가해남성들은 사건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성폭력범죄 특성으로 인하여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검찰 법원은 보다 면밀하게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넘지 못하는 수사과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성폭력 근절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성에 기반한 행해지는 성폭력은 우리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입니다. 우리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내어 말하기를 이어간 문화예술계의 여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응원과 우리 모두 함께 라는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 사법부는 국가는 이 적폐 중에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 그것은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똑똑히 지켜 보며 행동할 것입니다.

< 발언문 4 >

## "미투운동의 힘으로 건강한 연극 생태계를!"

이산(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활동가)

안녕하세요!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입니다.

최근 연극계에 종사하는 배우, 연출가, 작가, 제작자, 기획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묻혀져 있던 성폭력 사건을 드러낸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건강한 연극 생태계를 만드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지난 2월 21일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미투운동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알려 또 다른 가해를 막아낸 피해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연극계에 만연한 성폭력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수직적,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용기와 시민들의 지지로 많은 가해자가 가해를 멈추고 자숙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없이 침묵하거나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또한 미투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변호하는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피해가 있다고 알려진 극단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자신의 경험을 알려 연극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 조치들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실태조사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미투를 선택한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미투(#Me Too)운동에의 응답, 우리 스스로의 변화부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맙습니다! 미투(#Me Too) 참여자들의 ‘말하기’는 그동안 성폭력을 하고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일상을 영위해온 가해자들과, 이 문제에 둔감했던 우리 사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한분, 한분의 ‘말하기’가 모여 엄청난 물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에 공분하고 문제를 풀어가고자 노력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했던 분들까지도 매일 터져 나오는 미투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폭력피해자들의 말하기는 오래 전 부터 쉽 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 매년 약 10만여 건의 성폭력상담을 하고 있고, 2003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대회>도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귀를 닫았던 대중들과 언론이 이번에는 확! 달라졌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사회가 미투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응답을 할 시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미투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투 참여자들을 신뢰하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형사사법절차를 밟을 사건은 공정한 수사과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성편향적인 판단기준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기준(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35호)을 보면, 남성에 비해 종속적인 여성의 위치와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온전성(integrity)의 권리에 반하는 범죄로 특정 짓고, 성범죄의 정의를 ‘자유로운 동의의 반한’것으로 봐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아직도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어 2차 피해의 위험이 큼니다. 2차 피해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미투운동에 참여하신 분 중에 피해 시기가 오래되어 현행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지라도 결코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미투 운동의 의미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일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성폭력을 어떻게 생각해왔고, 피·가해 당사자로서, 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친구, 지인으로서, 어떤 말과 태도를 가졌었는지를 성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성폭력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동하는 (주변)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6 >

## “당사자의 목소리 1”

김수희(연극인)

이명행배우의 성추행기사로 대학로가 연일 시끄럽던 중에 서지현 검사님의 폭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을 나온 후로 무던히도 잊으려 했던 이운택이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잠시 주저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냥 묻힌다면 어쩌나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극계의 선생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이기에 멋지고 훌륭한 연극인재들이 그 때문에 연극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눈치나 보며 작업을 계속해야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공연으로 어떻게 관객과 현재를 나눌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만 아니었으면, 그가 아니라도 그 썸은 가볍게 뛰어넘는 더 멋진 공연이, 더 훌륭한 연극쟁이가, 세계를 아울렀을 거장이 나왔을 텐데. 그의 잘못을 밝히고 죄 값을 받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쓰기까지 참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추행 수위와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들, 피해자를 추적하고 비방하는 sns글들로 저희는 여러 번 상처입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하마터면 움츠려들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힘을 냈고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저희를 지지해주는 여성단체들이 모여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저희의 행동을 지켜보며 망설이고만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내주세요. 잘못된 이는 벌을 받고 희망을 품은 이는 기회를 맞을 수 있게, 노력하고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 용기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한 나를 사랑해주는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됩니다. 고통 받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분들을 대신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발언문 7 >

## “당사자의 목소리 2”

이재령(피해자)

미투에 동참하고 후배님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놀라고 아파했고 오래전에 담아두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오랜시간 서로 한번도 소통하지 못했나... 이번 미투를 통해 피해자 대부분이 처음으로 기억 저 안쪽으로 억지로 구겨넣어 둔 가슴 아픈 고통스런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게 되었고, 우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연극공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와 동떨어진 폐쇄적인 공간에서 운명공동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쌓인 일들을 시급하게 해결해나가기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서로 대화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어렵게 말을 꺼낸 후,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대답은 “그 때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발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캐스팅에 제외되거나, 정신이 이상하다는 공개적인 모욕을 듣고, 더욱 힘든 스텝일로 내쳐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또 다시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저의 무력함을 깨달았고, 혼자 고뇌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극단을 나왔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도망 나온듯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운택이 본인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이간질하였고

악질적인 헛소문을 퍼뜨려 우리를 고립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선후배들이 드러내 말하지 못하는 성폭력의 상처들을 안고서, 행여 누가 눈치라도 챌까 두려워하면서 그 많은 세월 서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오해를 안고 각자 외롭게 지내온 시간들이 지금은 가장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저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동료 선후배들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들이 상처입은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혼자만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치유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운택의 잘못이지 연희단거리패를 지나온 사람들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는 길이길 바랍니다.

이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갈 우리들의 날들에 대한 좋은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 발언문 8 >

## “당사자의 목소리 3”

홍선주(피해자)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의 폭로 글이 터지고 저는 저도 모르게 감히 이래도 되나... 두려워하는 저를 발견했고 저라도 입을 다물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운택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째서 이운택 대표는 거짓된 변명들로 가족 같은 후배가 자신의 임신·낙태까지 폭로하게 했는지... 너무 괴롭고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 외에 많은 후배와 동료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섭지만 이런 후배들, 그리고 동료들을 대신해서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하냐 묻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해 주세요. 주목받고 싶었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주목받고 싶은 여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고백한 후 제 가족들과 극단 신상까지 노출되면서 가슴 아픈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2차 피해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단거리패 출신인분들! 많이 아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서로 미안해하고 원망하지 말았으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연희단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의 이런 어려운 고백들로 지금도 연극현장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는 후배들이 마음 편하게 연극할 수 있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저희들의 자식들은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사건을 엄중히 처벌해주시시오.